

어린이 생활 사전

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나와 너,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넓고 크고 센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

#매너 #예절 #인성교육
#의사소통 #사회관계

관련 교과

국어 1-1 5.다정하게 인사해요
국어 1-2 6.고운 말을 해요
국어 2-1 10.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국어 2-2 10.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요
여름 1-1 3.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을 1-2 1.내 이웃 이야기
도덕 3 1.나와 너, 우리 함께
도덕 3 5.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도덕 4 2.공손하고 다정하게



김수현 글 | 장선환 그림 | 112쪽 | 13,000원 | 초등 저학년

책 소개

즐거워 퀴즈, 유쾌한 그림이 가득한 어린이 매너 교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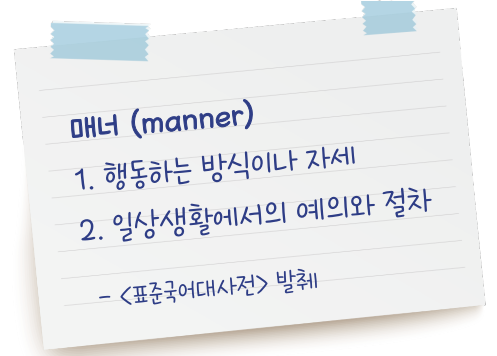
《매너는 좋은 향기가 나요》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절, ‘매너’에 대해 알려 주는 어린이 생활 교양서예요. 25개의 퀴즈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때 필요한 매너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 봄으로써 평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매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친 매너는 습관처럼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직접 말하고, 써 보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매너는 대단한 말, 어려운 행동이 아니예요. 이 책을 통해 어쩌면 교과 선행 학습보다 더 중요한 매너를 잘 익혀서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매너 꽃을 활짝 피워 보세요!

1. 책을 읽기 전에

1. '매너'의 뜻을 알고 있나요? 그 뜻을 잘 새긴 뒤, '매너'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예시) 편의점 계산대에서 새끼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매너가 없다고 느꼈다.



2. 여러분이 향기롭게 느꼈던 매너는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예시)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타는데 문이 닫히지 않게 열림 버튼을 눌러 주던 아저씨



II. 책을 읽으면서

1. 다음 그림의 말풍선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빈칸에 적어 보세요.

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②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



③ 하룻길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II. 책을 읽으면서

2. 아래 그림에서 잘못된 점을 찾은 뒤, 올바른 행동으로 고쳐 주세요.

- ① 짝궁이 잃어버린 크레파스를 대신 찾아 주었는데, 아무래도 짝궁이 의심스러워요.



- ② 지하철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타셨어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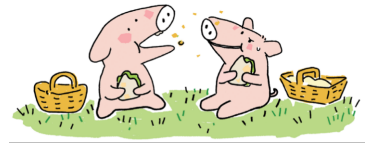


- ③ 마트에서 동생을 카트에 태우고 빠르게 달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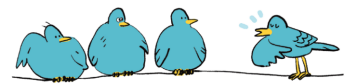
II. 책을 읽으면서

3. 집에서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나 학교 급식 시간에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불쾌했던 경험과 그 까닭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본문 64~67p 참고)



4. 이 책에 수록된 매너 중, 사람들이 꼭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매너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예시) 서로서로 인사를 잘하면 좋겠다.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 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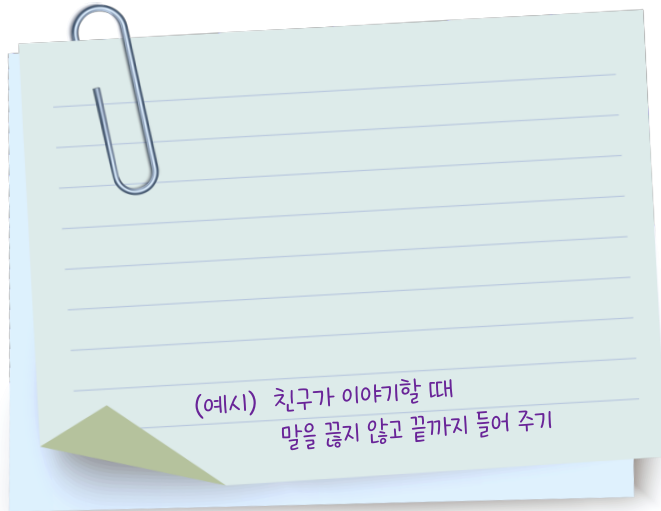
5.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매너를 지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반대로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나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예시) 친구가 매너 없이 행동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III. 책을 읽고 나서

1. 이 책에 실린 말과 행동 외에도 모두가 잘 지켜야 할 매너가 많아요. 나의 경험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매너를 적어 보세요.



2.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매너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래 빈 말풍선에 적은 뒤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그 말은 아마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도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다정하게 말해 주세요.

